

책 머리에

- 2005 년 합본호를 발행하며

금년 <한국>은 독일 사회에서 각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베를린 시에서 격년으로 주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주간> 행사의 초점이 한국에 주어질 뿐 아니라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 주최측은 금년 한국을 주빈국으로 선정했다. 지난 3 월 이래 독일의 여러 도시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문학 낭독회, 영화 시사회, 미술 전시회, 학술 심포지엄, 음악회, 춤 공연, 연극 공연과 같은 많은 종류의 행사가 열리고 있다. 60 여명의 한국 작가들이 여러 만남의 계기를 위해 독일로 초청되었으며, 100 여권에 달하는 한국의 책들이 금년 독일어로 출간된다.

이를 계기로 하여 <코레아 포럼> 이번호는 남한의 문학을 특집의 첫 주제로 삼았다. 독일의 유명 출판사 dtv 는 금년과 내년에 걸쳐 황석영의 소설 <한씨 연대기> <무기의 그늘>, <오래된 정원>, <손님> 등 을 출판하는 바, 이번호에서는, 20 세기를 청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소설가 황석영의 문학세계를 조명해 본다. 또한 각 시대가 안고 있는 역사적 아픔과 상처를 시로 표현하면서, 슬픔이 가진 힘을 펼쳐가고 있는 시인 허수경의 작품을 소개한다. 헬가 피히트는 그가 펴내고 있는, 근 100 년에 이르는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설 <토지>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금년 독일어로 번역 출판된 한국 문학을 일별할 수 있도록, 주해를 덧붙인 작품목록을 곁들였다.

2005 년은 또한 세계 제 2 차 대전 종전 60 년, 한국으로서는 해방 60 년을 맞는 해이다. 독일의 언론은 나찌의 역사와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불의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억>의 작업이었다. 본지는 제 2 특집으로서, 독일에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측면, 즉, 제 2 차 대전 중의 일본의 역할과 그로 인한 동아시아의 희생을 주제로 삼았다. 라이너 베르닝은 이 주제를 소개하고, 정신대로, 학도병으로 끌려가, 일제의 대동아 공영권 정책의 피해자가 된 두 사람의 증언을 소개한다.

제 3 특집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독일에서 종종 신문 기사 제목으로 등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 배경을 분석할 수 있는 정보는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번호에는, 최근 열리고 있는 6 자 회담에 대한 분석, 독일 개신교 북한 방문단의 북한 방문기, 남한의 탈북 난민의 실태, 북한에 있어서 비정부 기구의 어려운 역할에 관한 분석, 조선 기독교도 연맹 대표의 참석을 계기로 하여 국제적 규모로 열린 한독 교회협의회 회의 공동 결의문이 실려 있다.

이번호의 포토 시리즈로서는 사진 작가 김수남의 한국 샤머니즘에 관한 사진을 소개한다. 김수남은 수십년에 걸쳐 샤머니즘을 사진으로 담아온 작가로서, 그의 사진전이 <아시아 태평양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가장 오래된 종교로서 샤머니즘은 아직도 한국인의 마음과 한국의 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최 현덕, 요헨 힐트만, 라이너 베르닝